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율법과 역사와 예언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좀더 명확하게 만날 수 있는 시편의 말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마지막 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상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2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후에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때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데요,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아이들이 외치는 것을 중단시키라고 할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8:2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8:4-6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6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시는 바로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안에서 아주 작은 미물과도 같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며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살길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늘 가득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들은 단지 감사와 찬양 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10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즉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을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 6:37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3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바로 의인이라고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의인과 대비되는 악인에 대한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단순히 도덕적인 악한 일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도 서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3-4 말씀은 악인의 대표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자신의 죄와 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오히려 업신여기면서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까지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 우리 주심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를 위하여는 변호해 주시며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지 않고 그 분의 구원과 심판을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9:5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시는 심판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때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멸하신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졌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형벌은 받는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나아와 자복하고 회개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입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형벌의 심판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주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 주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